제 121회 KMA LEADERS FORUM 강연 요약

일시: 2018년 5월 4일 (금) 06:40~09:00 장소: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 하모니볼룸



SPEAKER

김지윤 선임연구위원

아산정책연구원

- 현)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
- 현)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위원
- ·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(MIT) 정치학 박사
- · 캘리포니아 대학교 공공정책학 석사
-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
- · 방송 : KBS1 <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> 고정 패널

NEW ERA OF STRONG MAN, 글로벌 정세와 리더십을 통찰하다!

1. G2: 투키디데스의 함정

- 기원전 5세기에 전통의 강자 스파르타와 급격하게 부상한 아테네 사이에 벌어진 지중해 패권 싸움.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이를 신흥국에 대한 기존 강자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주장함. 신흥 강대국이 기존 판도를 흔들 면 결국 양측의 무력충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
- 세계 역사를 통틀어본 결과 기존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이 대치했던 16번의 경우 중 12번이 결국 전쟁으로 귀결되었음. 기존 강대국 미국과 신흥 강대국 중국 간의 패권 싸움의 결론에 전세계의 운명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님.

2. 미국 VS 중국: 공생관계

- 두 강자 간 전쟁을 피하기 위해 세계는 여러 제도를 만들어냈음
-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고 WTO 등 이를 뒷받침하는 기구를 설립 함으로써 중국-미국 간 경제적 이익을 통한 공생 관계를 만들어 냄.
- 더불어 민주주의를 확산 시킴으로써 개별의 국가가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함.

3. 미국 VS 중국: 경쟁관계

-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(American First) 주창으로 인해 국제적 리더십 및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가치가 쇠퇴되고 있음.
- 남중국해, 대만 문제 등 여러가지 대치 상황이 두 국가 사이에 벌어지고 있음.
- 이러한 두 국가 간의 문제가 무역 전쟁과 군비 경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음

4. STRONG MAN: 시진핑과 트럼프 리더십

- 트럼프 리더십: 모든 기득권에 대해 혐오와 불신을 표함으로써 대중과 영합하는 쪽임. 강한 미국, 강한 리더십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함. 때문에 관료집단을 이끌고 시스템을 운용하기에 그의 리더십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.
- 시진핑 리더십: 트럼프와 비슷한 강한 1인 리더십이나 과시적으로 행동하지 않음. 부정 부패 척결을 통해 새로운 중국으로 거듭나고자 함. 다만 이러한 혁신활동으로 인한 불만 세력을 어떻게 봉쇄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음.





제 121회 KMA LEADERS FORUM 현장스케치

일시 : 2018년 5월 4일 (금) 06:40~09:00 장소 :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 하모니볼룸









